

KU-The Future



고려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안내서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안암캠퍼스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세종캠퍼스 30019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2511
<http://oku.korea.ac.kr> <http://m.korea.ac.kr>

tel. 02-3290-5161~3
tel. 044-860-1900

고려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안내서



KOREA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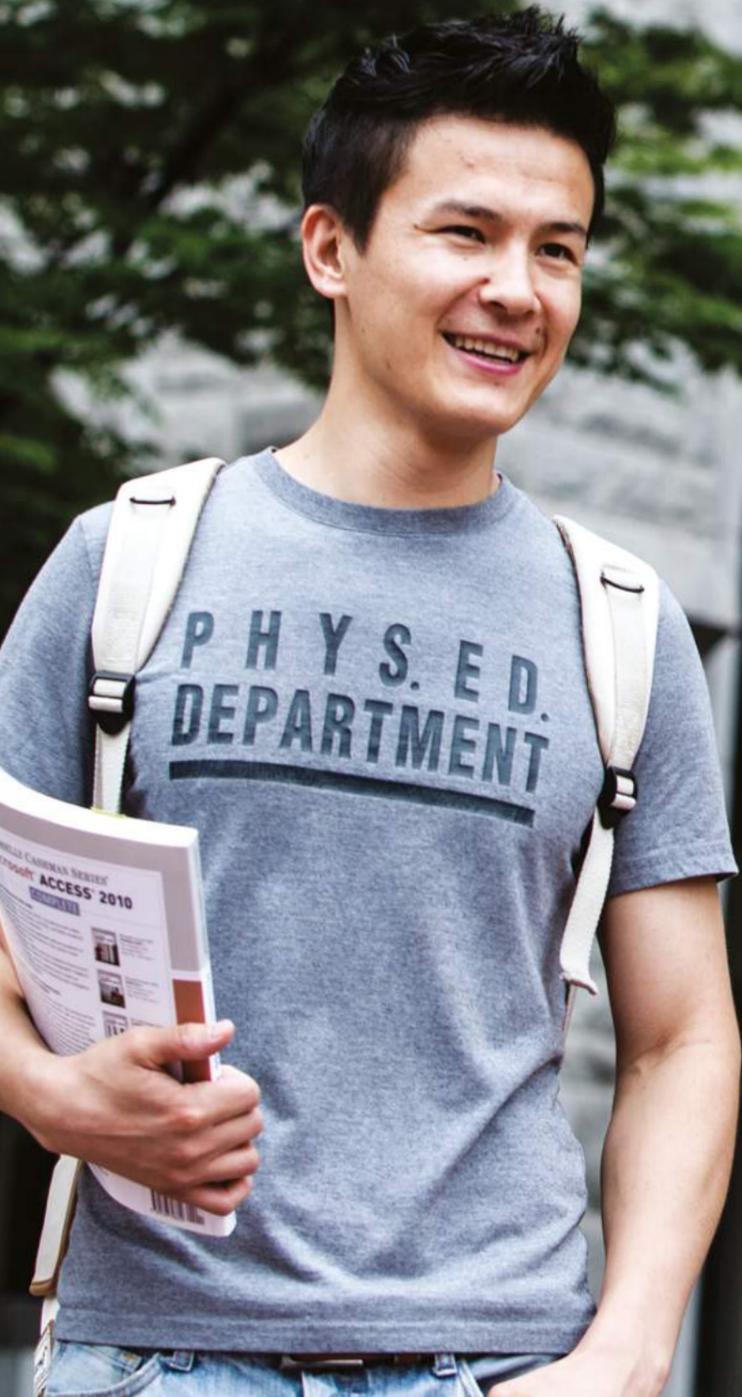
contents

	02		32
I. 고려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어떤 학생을 선발하나요?		IV. 학생부종합전형의 오해와 진실	
고려대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04		
고려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어떤 학생을 선발하나요?	05		
	06		37
II. 2020학년도 전형 안내		V. '학종' 선배가 들려주는 합격 이야기	
전형별 모집인원 및 전형요소	08		
수시모집 전형 및 모집단위 계열별 최저학력기준	09		
	10		49
III. 실제 사례로 보는 학생부종합전형		VI. 고려대학교에서의 대학 생활	
서류평가	12	선배들이 들려주는 고려대학교 새내기 라이프	
자기소개서	13	선배들이 들려주는 REAL 고려대학교 이야기	52
학교생활기록부	20		
면접평가	27		

I. 고려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어떤 학생을 선발하나요?

고려대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고려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어떤 학생을 선발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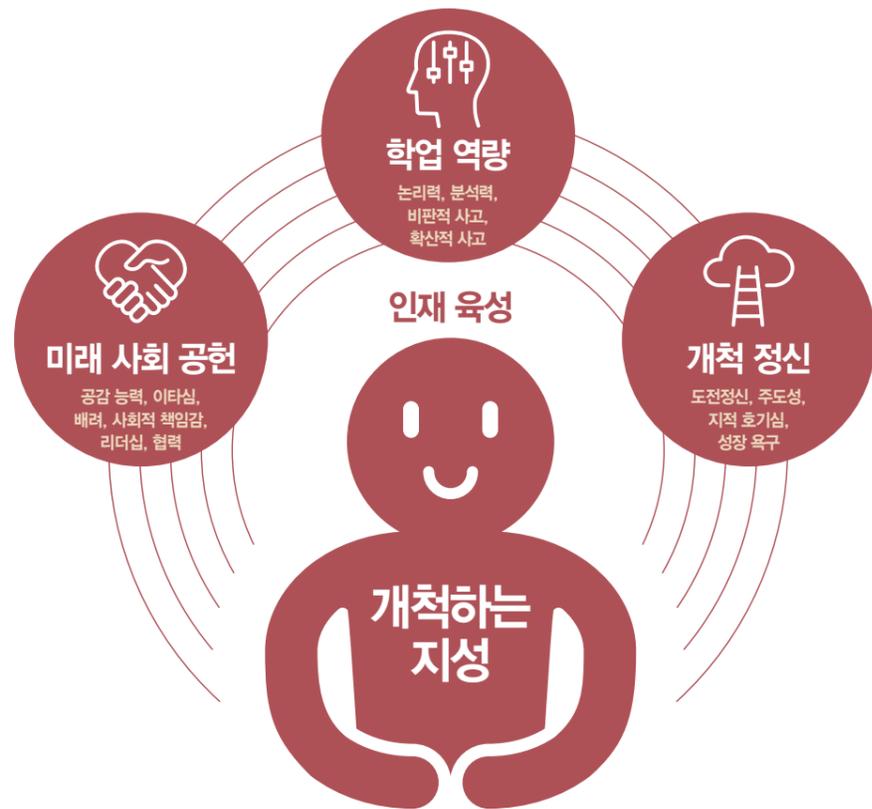
고려대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고려대학교의 교육 목표는 지적체를 겸비한 인격을 연마하고, 창의적 학문 탐구와 전문적 실천 능력을 배양해 한국과 국제 사회에 기여할 개방적 지도력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 목표에 따른 고려대학교의 인재상은 공감 능력, 이타심, 사회적 책임감, 리더십, 협동심을 기반으로 미래 사회에 공헌할 인성을 갖춘 인재, 도전정신, 성장 욕구를 바탕으로 개척 정신을 갖춘 인재, 논리력, 분석력,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입니다. 미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단순히 주어진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운 것을 내면화하고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려대학교는 이런 잠재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고 찾아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인재상은 고려대학교가 대학 교육을 통해 육성하려는 학생의 이상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입학 후 본 교에서의 수학을 통해 인재상에서 제시한 모습대로 학생이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따라서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는 이미 완성된 학생이 아니라 고려대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에 맞게 성장할 수 있는 기본 잠재력을 갖춘 학생을 찾는 데 주목합니다.



고려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어떤 학생을 선발하나요?



고려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 3년간 꾸준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학생
- 적극적이고 긍정적 생활 태도를 보이는 학생
- 자기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
- 졸업 후 고려대학교를 빛낼 수 있는 학생

을 선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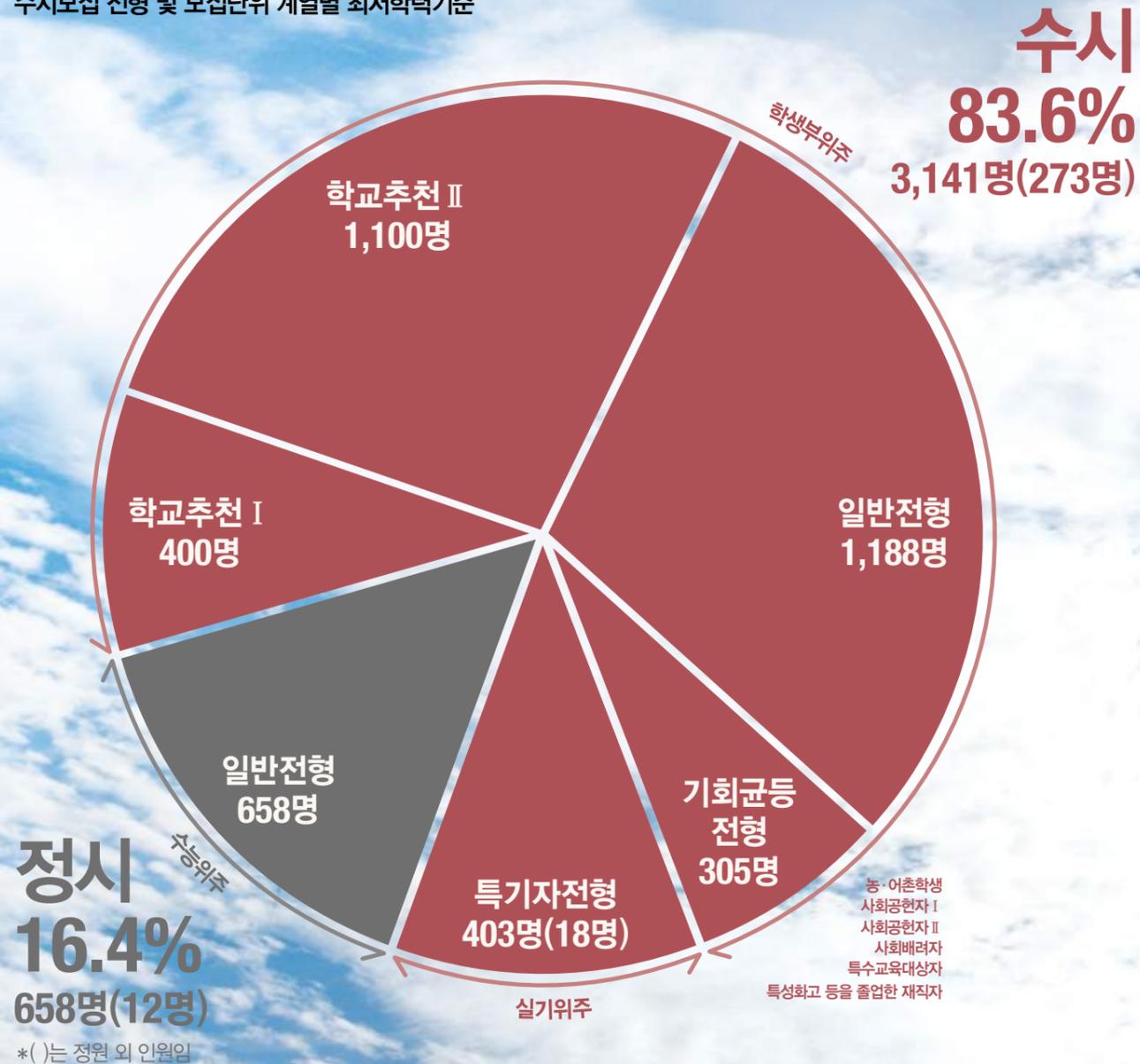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의는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해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평가하는 전형'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생각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고등학교에 대한 신뢰와 교육 현장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고려대학교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수능·논술처럼 일회성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3년간 학생이 얼마나 충실하게 학교 생활에 임하고 학습하며 성장했는지 주목합니다. 따라서 수치로 나타난 성적보다 학생을 둘러싼 교육 환경에서 어떤 자세로 생활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교육 활동 과정 속에서의 성장과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더불어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끊임없이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을 선발합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학생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빛내고 나아가 학교를 빛내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기다립니다.

II. 2020학년도 전형 안내

전형별 모집인원 및 전형요소

수시모집 전형 및 모집단위 계열별 최저학력기준



전형별 모집인원 및 전형요소

모집 시기	전형 유형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요소	
수시 모집	학생부	학생부종합(일반전형)	1,188	• 1단계: 서류 100 •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학생부교과(학교추천 I)	400	• 1단계: 학교생활기록부 ¹⁾ (교과) 100 • 2단계: 1단계 성적 50 + 면접 50	
		학생부교과(학교추천 II)	1,100	• 1단계: 서류 100 • 2단계: 1단계 성적 50 + 면접 50	
		기 회 균 등 전 형	학생부종합(사회공헌자 I)	25	• 1단계: 서류 100 •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학생부종합(사회공헌자 II)	25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	(116)	
			학생부종합(사회배려자)	(67)	
			학생부종합(특수교육대상자)	(37)	
			학생부종합(특성화고교졸업자)	(25)	
			학생부종합(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10)	
실기	실기(특기자전형)	인문	146	• 1단계: 서류 100 • 2단계: 1단계 성적 50 + 면접 50 * 사이버국방학과 • 1단계: 서류 100 • 2단계: 1단계 성적 60 + 면접 20 + 기타 20(군 면접, 체력 검정 등) * 체육교육과 • 1단계: 서류 100[경기실적 70 + 학생부(교과) 25 + 학생부(출결) 5] •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자연	219(18) ²⁾		
		체능	38		
		소계	403(18) ²⁾		
정시 모집	수능	수능(일반전형)	658(12) ³⁾	• 대학수학능력시험 ³⁾ 100 * 의과대학, 간호대학 수능 100 + 적성·인성 면접(결격 판단용으로 활용하며, 별도의 배점 없음) * 체육교육과, 디자인조형학부 수능 70 + 실기 30 * 사이버국방학과(12명) 수능 80 + 기타 20(군 면접, 체력 검정 등)	
총 모집인원			3,799(285)		

* ()는 정원 외 인원임

¹⁾ 학교생활기록부: 이하 학생부

²⁾ 사이버국방학과

³⁾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하 수능

전형 및 모집단위 계열별 최저학력기준

전형명	최저학력기준	
일반전형	인문계	국어, 수학 가/나, 영어, 사회/과학탐구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6 이내 및 한국사 3등급 이내
	자연계	국어, 수학 가, 영어, 과학탐구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7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
	의과대학	국어, 수학 가, 영어, 과학탐구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
	비고	* 인문계, 자연계(의과대학 제외) 탐구영역은 2개 과목 중 상위 1과목의 등급으로 반영함 * 의과대학 탐구영역은 2개 과목 평균등급으로 반영함
학교추천 I	인문계	국어, 수학 가/나, 영어, 사회/과학탐구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6 이내 및 한국사 3등급 이내
	자연계 (의대 제외)	국어, 수학 가, 영어, 과학탐구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7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
	의과대학	국어, 수학 가, 영어, 과학탐구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
	비고	* 탐구영역은 2개 과목 평균등급으로 반영함
학교추천 II	인문계	국어, 수학 가/나, 영어, 사회/과학탐구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 및 한국사 3등급 이내
	자연계 (의대 제외)	국어, 수학 가, 영어, 과학탐구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6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
	의과대학	국어, 수학 가, 영어, 과학탐구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
	비고	* 탐구영역은 2개 과목 평균등급으로 반영함

1) 학생부종합(특성화고교졸업자) 지원자는 탐구영역에서 직업탐구 영역도 인정하며, 자연계 모집단위 지원자 중 직업탐구 영역 응시자는 최저학력기준에서 '수학 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2) 학생부종합(사회배려자, 특수교육대상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실기(특기자전형)는 수능 지정응시영역 및 최저학력기준 없음

Ⅲ. 실제 사례로 보는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면접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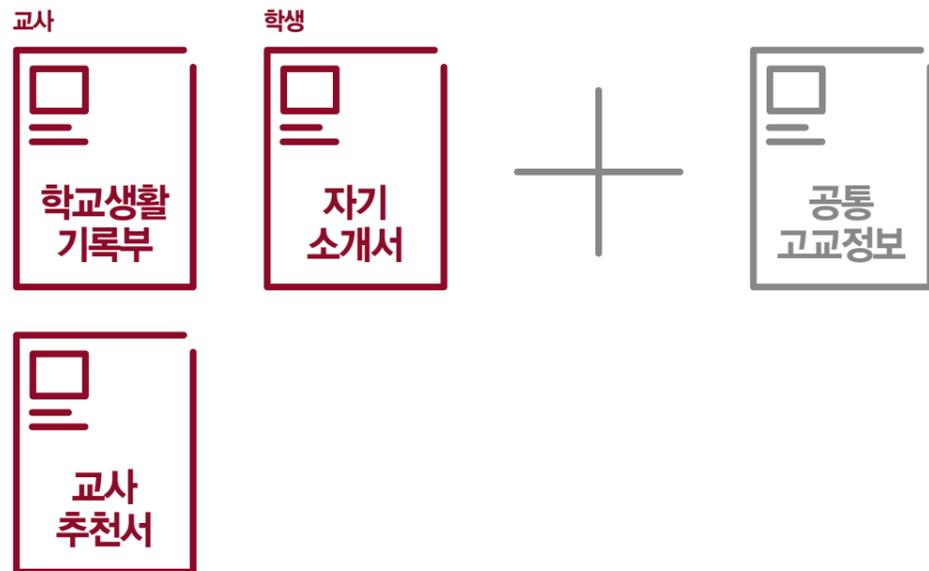


서류평가



고려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평가는 제출 서류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이뤄집니다. 이와 더불어 공통고교정보는 고교별 교육 과정의 특성과 동아리 및 수상 운영 현황 등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이해를 돕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제출 서류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평가는 주어진 고교 환경 안에서 학생이 기울인 노력과 성장 과정, 학교 생활의 성실성과 우수성 등을 고려합니다. 더불어 인성, 전공 분야에 대한 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평가자는 활동 결과에만 주목하지 않습니다. 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 해당 활동을 통한 학생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학생의 경험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학사정관이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가.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전부 드러나지 않는 지원자의 개성과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교내 활동에 참여한 학생이 배우고 느낀 점, 발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 전 지원자가 능동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마지막 서류이므로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많은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자기소개서 작성에 투자하면서 '혼자 써도 괜찮을까?', '사교육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 하고 고민할 만큼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화려한 실적을 나열하거나 유려한 문장으로 아름답게 포장해 작성한 자기소개서는 생각보다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입학사정관은 조금 투박하고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나만의 이야기로 풀어낸 자기소개서를 기다립니다.

이제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각 문항에서 제시하는 답변은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고민하는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모범 답안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Q1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세요. (1,000자 이내)

1번 문항은 지원자의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학문을 대하는 진지한 자세, 자신만의 학습 방법,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학업 성취를 이룬 뜻깊은 경험 등 학업 관련 경험과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내신 등급이 상승했거나 경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등의 실적을 나열하기보다 그런 학습 경험이 지원자에게 미친 영향과 변화를 보여줄 수 있게 작성하세요.



NG사례

저는 수학에 관심 많습니다. 내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일 문제집을 풀고 궁금한 내용을 선생님께 질문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성적이 점차 향상되어 2학년 이후에는 출근 수학 교과에서 1등급을 유지하는 한편, 수학경시대회에서 지속적으로 금상을 받았습니다.



A+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저는 수학을 참 좋아합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까, 어떤 공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정말 즐겁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는 수학 공식 뒤에 숨겨진 논리와 철학을 알아내려 관련 도서를 찾아 읽고, 의문이 생기면 선생님께 몇 번이고 찾아가 질문합니다. 이렇게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즐기고 좋아하니 내신 성적은 자연스럽게 향상됐습니다. 수학경시대회에서는 모범 답안과 다른 창의적 접근으로 문제를 풀어 선생님께 크게 칭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Q2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하세요.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1,500자 이내)

2번 문항은 지원자의 활동 중 자신의 특성과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는 사례를 중심으로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서술하는 문항입니다. 우선 사례를 선정해야겠죠? '3개 이내로 기술'이라 되어 있으나 반드시 3개를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꼼꼼히 검토하고 자신이 가장 정성과 노력을 들여 수행한 활동 또는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던 경험을 찾으세요. 이때 반드시 성공과 성취를 이뤄낸 경험일 필요는 없습니다. 좌절과 실패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느끼고 배운 점이 있으면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단,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이면에 담긴 구체적 이야기를 담아내세요.



NG사례

저는 과학 실험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며 과학경시대회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활동은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관심 분야에 대한 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A+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제 고등학교 생활은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해 '어렵고 힘들게' 지내온 시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근 화학에 관심 많았던 저는 고등학교에서도 화학 관련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에는 화학 동아리가 개설되어 있지 않았고, 정규 동아리를 새로 만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 몇 명과 화학 실험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고 싶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렸고, 선생님께 구체적 활동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후 동아리 개설을 허가받았습니다. 저는 직접 실험 주제를 선정하고 실험에 필요한 도구 대여부터 실험 보고서 작성까지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서 배운 실험뿐 아니라 좀더 심화된 실험까지 계획하고 시행하면서 '화학'이라는 학문의 매력에 푹 빠졌고, 제 꿈을 좀더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좀더 심화된 실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세부적으로 어떤 실험을 했고 그 과정에서 지원자가 느끼고 배운 점을 함께 적으면 좀더 풍성한 글이 될 수 있겠죠.

Q3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세요.(1,000자 이내)

3번 문항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경험을 통한 지원자의 인격 형성 과정을 살펴보는 문항입니다. 고등학교 생활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한 경험, 친구와 협력해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을 한 경험,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 친구 또는 선생님과 갈등 사례 등을 해결한 경험을 떠올리세요. 이런 경험과 사례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해당 경험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충분히 생각해보고 가장 기억에 남고 의미 있던 활동에 초점을 맞춰 작성하세요.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된 특별한 사례를 구성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좋은 자기소개서는 스스로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낸 것입니다.



NG사례

저는 3년간 반장으로 선출되어 학급 회의를 주재하고 친구들 의견을 하나로 모아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저는 '잘 말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항상 제 의견을 말하기 전에 친구 이야기를 먼저 듣고, 저마다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며 친구들은 '인내심이 많은 친구, 이해심이 넓은 친구'라 합니다. 저의 이런 면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 저는 3년 내내 반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학급 대표로 활동하면서 한 사람의 불만도 없이 민주적 합의 절차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되 다수의 의견에 맞서려는 몇몇 친구와 개인적으로 좀더 가깝게 지내면서 그 친구들의 입장을 더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닫고 부정적 의견을 내던 친구들이 반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오히려 긍정적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를 보면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Q4 해당 모집 단위 지원 동기를 포함해 고려대학교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하세요.(1,000자 이내)

4번 문항은 지원 모집 단위를 선택한 동기과 이유를 적고, 1~3번 문항에서 표현할 수 없던 자신의 장점과 특성을 설명할 수 있게 구성된 문항입니다. 입학사정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등학생의 진로 희망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지원한 전공을 왜 선택했는지,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 해당 전공에 적합한 인재인지, 앞으로 자신이 가려 하는 진로에 해당 전공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하는지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만약 진로 희망이 변경되어 자신의 활동 경험과 지원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왜 이 전공을 선택했는지' 읽는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고려대학교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어떤 내용을 적길 바라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원자의 특성과 장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활동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적으면 됩니다. 단, 고려대학교의 전통과 역사에 대해 기재하거나 지원자와 고려대학교의 인연에 대해 기술하느라 아까운 분량을 낭비하지 마세요. 고려대학교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가 '태몽이 호랑이라서... 아버지의 모교라서...'는 아니겠지요? 자신이 어떤 면에서 고려대학교가 선발해야 할 만큼 우수한 인재인지 기술하기 바랍니다.



NG사례

제 꿈은 경제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발전을 생각할 때 경제 성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되는 사람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학자가 되어 나라 발전을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같은 현상을 두고 미래 상황을 예상할 때 학파마다 다른 해석과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경제학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경제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는 혼자 고등학생이 배우는 경제 교과서를 구해 읽고 대학생이 많이 분다는 원서로 공부하면서 경제학자라는 꿈을 조금씩 구체화시켰습니다. 지금 저는 '국제 경제학'에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 상황이 환율 변동을 가져오고 환율 변동이 주변 국가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과정과 효과가 아주 놀랍고 흥미롭습니다. 장차 저의 진로 희망은 국제 경제학, 특히 국제 금융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의

TIP

1 자신의 이야기를 쓰세요.

화려한 실적이거나 우수한 활동 경험을 사례로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평범하게 보일지라도 스스로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주세요. 솔직하고 담담하게 쓴 이야기가 평가자 마음을 움직입니다.

2 결과보다 과정을 보여주세요.

좋은 결과로 이어진 성공 경험만을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학사정관은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보다 '어떻게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됐는가'에 주목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최선을 다한 경험이 있었는지, 어려움이 닦쳤을 때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극복했는지, 그런 경험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3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지 마세요.

'과연 내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내용을 다 읽을까?' 이런 걱정과 우려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자기소개서에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은 제출 서류의 모든 부분을 정성껏 읽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에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적는 것은 자신의 장점과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다 보여주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기회로 활용하세요.

4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키세요.

고려대학교 자기소개서 양식에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12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사항에는 국문(한국어) 작성 원칙, 유사도 검색 여부, 0점 처리사항 등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학마다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 반드시 지원 대학의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자기소개서

Q&A

Q 다른 대학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고려대학교에 제출해도 괜찮나요?

A **괜찮습니다.**
같은 지원자라면 동일 대학의 다른 전형 또는 다른 대학에 똑같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더라도 유사도 검색 등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재수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년에 제출했던 자기소개서와 동일한 내용을 제출해도 됩니다.

Q 눈에 띄게 써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단락별로 제목을 달거나 명언을 인용하거나 다양한 문장 부호를 활용하는 등 자기소개서를 눈에 띄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어떤 형식으로 작성되었는가에 관계없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나. 학교생활기록부

1. 출결 상황

출결 상황으로 학교 생활에 임하는 성실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간 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석·지각·조퇴·결과 기록이 있어도 질병 등 이에 대한 사유가 분명하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결석·지각·조퇴·결과 사유가 기록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기소개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바랍니다.

2. 수상 경력

수상 경력은 교내 활동 참여의 적극성과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더불어 학생의 관심 분야와 성장 과정에 대한 기록의 의미도 갖습니다. 하지만 수상은 고교별로 운영하는 방식과 기준이 다양합니다. 교내 수상이 20개 남짓인 학교가 있는 반면, 100개 이상의 수상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학생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수상 내역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공통고교정보를 활용합니다. 수상 내역을 파악할 때 공통고교정보를 함께 활용하는 것은 지원자의 수상 실적에 기록된 수상 개수와 수상 등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보다 지원자에게 열려 있던 모든 기회와 가능성 중 지원자의 성취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주어진 환경 내에서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 주목하기 위함입니다. 사례를 통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상 경력 (예시 : A고교 A학생)

1학년	수학경시대회(은상/2위), 과학경시대회(물리/금상/1위), 과학도서 독후감대회(은상/2위), 과학토론대회(은상/2위), 과학 주제발표대회(은상/2위)
2학년	수학경시대회(동상/3위), 과학경시대회(지구과학/금상/1위), 과학토론대회(은상/2위), 과학주제발표대회(동상/3위)
3학년	수학경시대회(동상/3위), 과학경시대회(물리/은상/2위), 과학경시대회(생명과학/동상/3위), ○○인재상(과학부문)

수상 경력 (예시 : B고교 B학생)

1학년	수학경시대회(2위), 과학경시대회(생명과학/1위), 수리논술대회(우수/2위)
2학년	수학경시대회(1위), 과학경시대회(물리/1위), 과제연구대회(3위)
3학년	수학경시대회(3위), 과학경시대회(화학부문/1위), 과학경시대회(물리부문/1위), 과제연구대회(2위)

위 두 사례는 A고교 A학생과 B고교 B학생 수상 경력 중 수학·과학 관련 수상을 발췌한 자료입니다. 두 학생 중 어느 학생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수상 개수가 많은 A학생을 더 우수한 학생이라 볼 수 있을까요? 두 학생의 수상 경력에 적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각 고교의 공통고교정보-교내 시상 내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통고교정보 - 교내 시상 내역 (예시 : A고교)

연번	시상명	시상 기준 및 선정 방식	시상 인원	시상(참가) 대상	연간 시상 횟수
1	수학경시대회	수학 학습능력 우수 학생	금상(1명), 은상(2명), 동상(3명)	1, 2, 3학년	1회
2	과학경시대회	과학 학습능력 우수 학생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금상(1명), 은상(2명), 동상(3명)	1, 2, 3학년	1회
3	과학도서독후감 대회	물/화/생/지 도서를 읽고 훌륭한 독후감을 작성한 학생	금상(1명), 은상(2명), 동상(3명)	1, 2학년	1회
4	과학토론대회	주어진 탐구 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학생	금상(1팀), 은상(2팀), 동상(3팀)	1, 2학년	1회
5	과학주제발표대회	과학 관련 자유 주제를 정해 우수한 보고서를 작성한 학생	5명(1~5위)	1, 2학년	1회
6	과학발명품 경진대회	훌륭한 발명품을 제작한 학생	금상(1명), 은상(2명), 동상(3명)	1, 2학년	1회
7	○○인재상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진로를 모색하여 ○○인재라고 인정되는 학생 - 담임 추천 후 심사	분야(어학, 수학, 과학) 별 1명	3학년	1회

먼저 A고교입니다. A고교는 수학·과학과 관련해 위와 같이 7개의 수상을 운영합니다. 이중 A학생은 1~3학년에 걸쳐 6개를 수상했습니다. 특히 수학경시대회, 과학경시대회, 과학토론대회, 과학주제발표대회 등에서는 여러 차례 수상하는 등 우수성을 보였습니다.

공통고교정보 - 교내시상내역 (예시 : B고교)

연번	시상명	시상 기준 및 선정 방식	시상 인원	시상(참가) 대상	연간 시상 횟수
1	수학경시대회	논리적 문제 해결력	학년별 6명 (1위 1명, 2위 2명, 3위 3명)	전 학년	1회
2	과학경시대회	사고력 및 창의력	물/화/생/지 부문별 (1위 1명, 2위 2명, 3위 3명)	전 학년	1회
3	과제연구대회	연구의 적절성 및 논리성	1위 1팀, 2위 2팀, 3위 3팀	2, 3학년	1회
4	수리논술대회	수학적 문제 해결력 및 논리력	학년별 6명 (1위 1명, 2위 2명, 3위 3명)	전 학년	1회

다음은 B고교입니다. B고교는 수학·과학과 관련해 4개의 수상을 운영합니다. B학생은 1~3학년에 걸쳐 4개의 대회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수리논술대회를 제외한 모든 대회에서 1회 이상 수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수성을 보였습니다.

위의 두 사례에서 A, B 두 학생은 자신이 속한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수학·과학 관련 대회 대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수상 경력 기재 내용만으로 비교하면 정량적 수상 실적은 A학생이 훨씬 풍부하고 다양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교별 교내 시상 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두 학생 모두 주어진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수학·과학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며 우수한 실력을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학생 중 누가 더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수상 경력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적 수상 개수와 등위가 아닙니다. 입학사정관은 수상 경력을 통해 주어진 환경 안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자세, 관심 분야에 대한 지속적 탐구와 성장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3.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기 위해 반드시 특정 자격증이나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원자가 있습니다. 자격증 또는 인증을 취득한 경우 지원자가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지만 특정 자격증이나 인증을 취득했다는 사실에만 주목해 평가하지 않으며, 해당 자격증이나 인증이 없다고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단순한 결과보다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학생의 성장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4. 진로 지도 상황

진로 지도 상황은 고교 생활 3년간 지원자가 어떤 꿈을 바탕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학생이 '진로 희망이 변경되면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아니오'입니다.

고등학교 시기는 다양한 꿈을 꾸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기로 성장하면서 진로 희망이 변경되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입학사정관은 지원자의 진로 희망이 변경되는 과정을 참고해 각 시기에 어떤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는지, 어떤 활동에 주력했는지 주목합니다. 급격하게 진로 또는 학과를 변경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내용만으로 지원자가 수행한 활동과 지원 학과 간의 연결 고리를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라 걱정되면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세요. 진로 희망이 변경된 계기와 그 과정에서의 노력, 최종적으로 학과를 선택하게 된 사유 등에 대해 자세히 적으면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5.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자율 활동

자율 활동은 대부분 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참여한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리더십 발휘 경험 등 지원자 고유의 특성과 활동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이를 통해 지원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리더십 발휘 경험이란 반장, 부반장 활동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학습 부장, 서기 등 작은 역할이라도 책임감을 갖고 다른 학생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리더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 활동에는 지원자 인성, 지원 전공과 관련한 활동 경험, 학업에 대한 노력 및 우수성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곳곳에 숨어 있는 지원자에 대한 기록,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내용과 함께 지원자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시 1) 학급 반장으로 학급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함. 학기 초 1인 1역할제 실시를 담임 교사에게 직접 제안하고 구체적 방안을 계획해 추진함. 매월 학급 게시판에 대의원 회의 결과와 주요 일정을 정리해 공지하는 등 급우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임.

(예시 2) 기숙사 사생장으로서 학생의 기숙사 생활 어려움이나 고충 사항을 담당 교사에게 전달하고 학교 측과 학생 측 의견을 조율함. 기숙사에서 학생의 여러 가지 불만을 합리적으로 설득시키는 역할을 매우 뛰어나게 수행함.

동아리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지원자의 구체적 관심 분야와 흥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아리 내 활동 모습을 통해 지원자 생활 태도, 열정과 도전 정신, 문제 해결 능력 등 다양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도 학교별 운영 방식과 원칙이 매우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학기별로 한 학생이 1개의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고, 어떤 학교는 한 학생이 4~5개의 동아리까지 가입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 신청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자율 동아리를 개설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개설된 동아리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매년 동아리를 변경해야 하는 학교가 있고, 자신이 원하면 3년 내내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아리 활동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기에 앞서 공통고교정보를 통해 동아리 운영 현황 및 운영 방식의 특징을 파악합니다. 1인당 참여 가능한 동아리는 몇 개인지, 어떤 원칙을 갖고 운영하는지, 동아리 개설 방식은 어떤지, 어떤 동아리가 개설돼 있고 그 중 지원자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등 지원자 환경을 분석해 주어진 환경 내에서 기울인 노력에 주목합니다.

Q 3년 동안 하나의 동아리를 꾸준히 하게 한 것이 더 좋은 평가를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확인하려는 부분은 학생의 관심 분야와 동아리활동을 통한 성장과 발전 모습입니다. 어떤 동아리에서 활동했는지보다 동아리를 선택한 이유와 동아리 내에서 어떤 경험과 노력을 했는지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내용만으로 지원학과와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매년 동아리를 변경한 사유에 대해 추가적으로 적고 싶다면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세요. 입학사정관은 지원자의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검토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봉사활동

봉사 활동을 평가할 때 봉사 시간에 대한 정량적 평가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봉사 활동 기관을 선택한 동기와 목적, 수행한 활동의 성격 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직접 부딪쳐 시간을 쓰고 몸을 움직여 수행한 봉사 활동을 질적으로 좋은 봉사 활동으로 평가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조금이라도 느끼고 배운 것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봉사 활동 시간이 많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한 봉사 활동이나 일회성 캠프 참여 등을 통해 단순히 누적 시간만 채운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봉사 활동에 참여한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지원자가 느끼고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기를 기대합니다.

Q 지원 전공과 관련한 봉사 활동을 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지원 학과와 관련한 봉사 활동을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지원 학과와 관련한 봉사 활동을 수행했다고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지 않습니다. 봉사 활동 평가의 핵심 요소는 진정성입니다. 예를 들어 사범대학에 지원하고 싶어 하는 학생은 저소득층 중학생을 대상으로 1:1 교육 멘토링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범대에 지원하는 모든 학생이 반드시 이런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멘토링 봉사 활동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의미를 두고 꾸준히 수행한 활동이 있다면 얼마든지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진로 활동

진로 활동을 통해 지원자의 진로 탐색 과정과 관심 분야에 기울인 노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진로 활동 사례와 더불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동아리 활동, 수상 경력 등 학교생활기록부 곳곳에 기재된 지원자의 진로와 관련된 기술 내용,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원자의 모습을 구체화하여 이해합니다.

(예시 1: 심리학과 지원자) 평소 너그럽고 따뜻한 성품으로 학우의 고민을 잘 들어주어 학우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움. 투표를 통해 학급을 대표하는 또래 상담원에 임명됨.

(예시 2: 생명공학부 지원자) 생명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교과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생물학적 현상을 텔로미어의 염색체 수준으로 분석해 (중략) 또한 분석 결과를 질병 완화와 관련지어 의학 분야를 통해 풀어내는 통합적 시각이 돋보임.

6.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교과 성적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학업 역량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교과 등급에 대한 정량적 평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이수 과목, 이수자 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고교 내신 성적과 관련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은 과연 몇 등급 정도면 지원하기에 적절하고, 예상 합격권에 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학생부종합전형 교과 평가는 절대적 내신 등급을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지원자의 이수 교과를 파악하기 위해 소속 고교의 교육 과정 편성표를 통해 편성된 전체 교과를 분석합니다. 내신 등급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학교에 개설된 교과 중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난이도가 높고 이수자 수가 적은 교과를 선택하면 지원자의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고려하여 평가에 반영합니다.

일부 학생은 주요 교과 성적 관리의 중요성은 이해하지만 지원 전공과 관련성이 적다고 생각하는 교과를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특정 과목 성적이 다른 과목 성적과 비교할 때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고교 시절은 다양한 과목의 수업을 통해 다방면으로 수학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정 과목에만 치중해 학습하기보다 이수하는 모든 과목을 소중하게 생각해 두루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정 학교에 진학하려면 특정 과목의 성적이 뛰어나야 한다고 선불리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각 교과목 선생님이 한 학기 동안 수업 시간을 통해 관찰한 학생의 모습을 작성해주는 부분입니다. 지원자의 모습을 다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단순한 성취나 결과보다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발전과 성장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의미가 큰 항목입니다. 3년간의 학교 생활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한 모습에 주목해 학생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오래 지켜본 선생님이 작성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매우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적합한 학생에 대한 다면적이고 구체적 기술과 더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다른 항목에 적힌 내용, 자기소개서, 추천서 작성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학생의 고교 생활 모습을 이해하게 됩니다.

7. 독서 활동 상황

지원자의 독서 활동 기록으로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지적 호기심 측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하면서 깊이 있는 독서 활동을 꾸준히 수행한 지원자라면 수업 내용 중 궁금했던 점을 해결하거나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는 등 성장 과정에서 노력을 기울였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독서와 관련해 많은 학생이 무작정 전공과 관련한 책을 읽거나 대학 추천 도서로 알려진 책을 읽고 가능한 많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오해입니다. 많은 수의 책을 기록하려고 부담을 느끼거나 독서 권수를 늘리기에 급급해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몇 권의 책을 읽더라도 꼼꼼하게 그 의미를 생각하며 읽고 자신에게 울림을 주는 책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독서의 의미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꾸준히 책을 가까이 해 독서가 습관이 된 학생은 생각하는 힘이 생기게 되겠죠? 이는 단순히 독서 활동 상황에 기록된 책 제목뿐 아니라 학생의 고교 생활 곳곳에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8.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지원자 특징을 종합해 서술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다른 항목에 기록된 부분 중 담임 선생님이 인상적으로 관찰한 지원자의 특징을 모두 집약해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은 이 항목에서 강조되어 작성된 내용과 관련된 학교생활기록부의 구체적·객관적 기재 부분을 다시 찾아 확인하고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작성 내용과 비교해 검토합니다.

이상으로 실제 사례와 각 항목에 대한 주요 질문-응답을 바탕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각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 평가를 이해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서류 평가

Q&A

Q 비교과 평가 시 학년별 반영 비율이 있나요?

A 학년별 평가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 진로 탐색 과정을 거쳐 구체화된 진로 활동을 수행했는지, 의지를 갖고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활동을 수행했는지 등을 반영해 평가하므로 특정 학년의 활동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Q 3학년 때도 지속적 비교과 활동이 필요한가요?

A 현실적으로 3학년 시기에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거나, 2학년까지 수행한 비교과 활동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3학년 때 비교과 활동은 학업에 지나치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에 하던 활동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Q 고교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교내 프로그램 운영 차이가 학생 선발에 어떻게 작용하나요?

A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공통고교정보에는 개별 고교의 교육 환경, 교육 과정, 교내 동아리, 수상 등 비교과 활동 전반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이 자료를 평가 과정에서 고교의 환경 차이를 이해하는데 활용합니다. 더불어 학생이 주어진 환경 내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노력했는지 과정적 측면에 주목하여 평가합니다.

면접 평가



고려대학교는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 수준을 갖추었는지가 평가의 주안점입니다. 단순히 주어진 문항에 대한 학생의 답변에만 평가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며 면접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 의사소통능력, 논리적 사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서류를 통해 보지 못했던 학생의 모습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면접은 크게 학생부기반 면접과 제시문기반 면접으로 나뉩니다. 학생부기반 면접은 별도의 제시문 없이 서류확인 위주의 면접이 이루어지는 반면, 제시문기반 면접은 제시문과 문항이 주어지고 이를 통해 학생의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학생부기반 면접은 면접문항이 입실 전에 제공되지 않고 입실 후 바로 질의응답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재내용의 사실 확인과 더불어 특정 활동을 하게 된 동기 또는 이유, 그 활동을 통해 느끼고 배운 점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면접문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나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싶은 내용, 지원자의 활동 중 가장 특징적인 내용 등에 대한 질문 등을 위주로 구성됩니다. 자신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보고 자신을 모르는 사람에게 본인의 서류를 설명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해보세요. 면접을 의식하여 과도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솔직하게 자신의 활동과 경험담 등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하여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시문기반 면접은 고사실 입실 전에 제시문과 면접문항을 보고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제공됩니다. 제시문의 문항을 중심으로 면접이 이루어지며 제시문과 관련된 추가적인 질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지원 계열 및 전형에 부합하는 문항을 통하여 지원자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답변을 구성하고 해당 지원 계열에 알맞은 학업역량을 준비해왔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충실히 공부했다면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면접 문제지를 받으면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논리적 일관성을 바탕으로 답변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평가자의 눈으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실제 면접을 위해 대비해볼까요?

📺 Scene 1 고사실 입실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지원자가 고사실로 들어온다. 긴장한 모습으로 면접관을 쳐다보고 머뭇거리다 준비된 의자를 향해 걸어가 앉는다.

면접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고사실에 입실한 후 긴장한 탓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학생이 많습니다. 아무 말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들어오는 학생이 있는 반면, 힘차게 감독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인사는 감독관과 지원자가 처음 마주하는 순간에 대한 예의이자 서로의 인상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간단한 인사도 건네지 않는 모습은 지원자가 소극적 성격이거나 기본적 예의가 부족한 학생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또한 자신을 과도한 방식으로 표현하느라 주어진 면접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감독관을 곤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면접 시작은 '안녕하세요'의 공손한 인사면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연습하세요.

📺 Scene 2 면접 시간 1

지원자가 바닥을 향해 눈을 내리깔고 떨리는 목소리로 답한다.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기존 답변에서 확장된 추가 질문을 던지자 떨리고 있던 고개를 갑자기 들어 올린다. 이전과 달리 면접관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면접을 본다.

면접 시 면접관과 자연스러운 눈맞춤과 시선처리가 필요합니다. 면접관과 자연스럽게 눈빛을 주고 받으며 긴장을 풀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편안히 먹고 상대방 눈을 보며 이야기하면 진실된 답변을 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선처리의 중요성 때문에 간혹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뚫어지게 보는 지원자가 있습니다. 눈을 마주칠 때는 면접관이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고, 인중이나 코 끝을 가볍게 응시하면 눈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 Scene 3 면접 시간 2

지원자의 긴장이 약간 풀린 듯 답변을 하면서 비언어적 행동이 많아진다. 답변과 함께 두 손을 활용해 큰 동작으로 설명한다. 도중에 답변이 생각나지 않자 평소 습관대로 손으로 머리를 자주 정리하고 다리를 떨기 시작한다. “그러니까요, 그게... 뭐더라, 뭐라고 하지...”라 말한다.

긴장 상황에서 평소 습관이 그대로 노출돼 다리를 떨거나 턱을 괴는 등의 행동을 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면접관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존댓말과 반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제가 천체 물리에 대한 책을 읽으셨는데요', '저희 나라는 교육의 중요성이 크잖아요'처럼 존댓말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쌤이~, 개가~, ~했는데요. ~ 그런데요 ~있단 말이에요'처럼 친구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말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기뻐던 것 같아요'처럼 옳지 못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간혹 질문이 이해가 가지 않거나 답변을 바로 하기가 어려우면 잠시 생각할 시간을 얻은 후 답변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대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와중에도 면접 시간은 흐르고 있으니 너무 많은 생각을 하기보다 간단하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대답합니다. 만약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없을 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 Scene 4 면접 종료

면접이 종료됐다는 면접관 말을 듣고 지원자는 준비한 말을 다하지 못해 아쉬운지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흘리는 침묵을 끝으로 마치듯 자리에서 일어나 면접관을 멍하게 쳐다보고 눈인사를 살짝 건넨다. 아쉬움의 말을 혼자 되뇌며 나간다.

면접이 끝나면 고사실에 입실해 간단히 인사했던 것처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면 충분합니다. 긴장과 아쉬움에 눈물을 글썽거리는 친구, 준비한 말 하나만 해도 되느냐고 묻는 친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는 친구, 뒷걸음질로 나가는 친구 등 다양한 지원자를 만나게 되는 면접관에게 마지막 인사는 중요한 마무리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이 끝나면 차분하게 자리를 정돈하고 인사한 후 나가는 과정을 면접 유사 상황에서 연습하기 바랍니다.

이상 시간 순서에 따라 가상의 면접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는 면접 평가지만 서류상으로 볼 수 없었던 지원자의 다양한 측면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따라 다양한 지적 호기심을 충분히 발휘하고 평소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을 통해 면접 상황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접 준비의

TIP

1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선생님 또는 친구와 함께 면접 유사 상황을 가정하고 자신이 이야기하려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녹음이나 녹화로 자신의 목소리 크기, 속도, 평소 행동 습관을 살피면 도움이 됩니다.

2 면접으로 평가하려는 것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설명하느냐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두괄식으로 말하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주장의 근거 또는 사례를 덧붙여 답변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밝힌 다음 근거를 더하며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근거를 밝히면서 구체적 사례를 덧붙여 답변을 풍성하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서두에 밝혔던 자신의 주장을 한 번 더 언급하고 마무리하는 식이죠. 이는 답변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3 면접에 대비하려면 평소 독서를 하거나 공부를 하면서 사고를 확장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교 교육 과정 내에서 배운 학습 내용을 사회 현상이나 자연 현상과 맞물려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과 관련해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하면 사고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을 통해 확장된 사고력은 실제 면접에서 어떠한 추가 질문이 주어져도 평소 생각한 부분에 근거한 타당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4 주어진 시간 내에 말하려는 것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려면 한 문항에 대한 답변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답변의 요지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논리적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결부시켜 답변을 구성하려다 요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 문항의 답변에서 장황한 설명을 하느라 다른 문항의 답변을 상당 부분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겠죠. 따라서 일정 시간 동안 여러 문항에 대한 답변을 조리 있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

Q&A

Q 평소 말씀씨가 뛰어나지 않은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단순히 유창하고 화려하게 답변을 한다고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자는 학생의 답변에서 생각의 깊이와 논리적 사고의 흐름 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면접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지만 답변의 유창함 등으로만 태도를 평가하지 않으니 자신이 준비한 답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면접 시 복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면접 시 꼭 이런 복장을 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단정하고 학생다운 복장이 가장 좋습니다. 간혹 짧은 치마나 불량한 옷차림, 과도한 액세서리 착용, 진한 화장 등 면접에 적합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학생이 있습니다. 면접을 통해 외모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자가 주어진 면접 시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9학년도 입시부터 고려대학교는 블라인드 면접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소속 교고를 드러낼 수 있는 교복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IV. 학생부종합전형의 오해와 진실



Q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는 각각 몇 %씩 반영되나요?

항목별로 정해진 반영 비율은 없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평가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모두 반영해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서류에 반영 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지원자의 고교 3년간의 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함께 읽어가며 학생의 모습을 다면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중 특별히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단순히 교과 성적만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읽고 학생이 고교 시절 참여한 활동과 그를 통해 얻은 성취를 다면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특정 항목에 대한 반영 비율 또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공선택과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지원자의 관심 분야와 관련해 꾸준히 참여한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 전공 선택을 위한 자율·진로 활동 등 고등학교 3년간의 학교 생활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나 특정 항목에 반영 비율이 정해져 있는 정량 평가 방식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Q 선호하는 고교 유형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고교 유형을 좋게 평가하거나 나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고등학교마다 교육 과정과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르게 운영합니다. 지원자마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의 잣대로만 지원자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고교를 다닌다고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가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성실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한 지원자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해야 하는 중요한 활동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평가를 위해 해야 하는 활동은 없습니다. 지원자가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의 활동과 학업 성취를 위해 수행한 활동 모두 지원자가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활동의 지속성과 의미 그리고 활동하면서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지원하려는 전공과 유사한 이름의 동아리 활동을 굳이 만들어서 하거나 찾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에는 활동 명칭보다 내용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수만 다양한 활동이나 누적 시간만 많은 활동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활동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Q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평가 시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반영 비율은 각각 얼마나 되나요?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교과와 비교과 모두 중요합니다. 물론 교과가 기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교과의 우수성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비교과 활동이 없고 교과만 우수한 학생의 경우도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교과 전형이 아닌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서류 평가는 제출한 모든 서류를 살펴보기 때문에 교과와 비교과를 나누어 정해진 반영 비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와 비교과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Q 3년 동안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유지해야만 좋은 평가를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유지한 경우 좋게 평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적이 점차 향상된 경우 또한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 성적에 대한 평가는 단순한 등급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목의 난이도, 수강자 수 등 여러 환경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적이 향상되어야만 지원자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수한 성적이 유지되거나 지속적으로 성적이 향상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주어진 고등학교 환경 속에서 지원자가 성적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모습이 발견된다면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모집 단위별로 반영 교과가 정해져 있나요? 특정 교과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공이나 계열과 관련된 교과에서 우수한 성취를 나타내면 지원자가 해당 전공이나 계열에 관심을 두고 노력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학교 상황에 따라 지원하려는 분야와 관련된 교과목이 개설 안 된 경우가 있고 도중에 지원자의 진로가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정 교과만이 해당 모집 단위에 반영되면 지원자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영되는 교과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관심을 둔 과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교과는 무엇인지 등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더 볼어 특정 교과를 열심히 하기보다 모든 과목에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Q 전공 관련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범계열을 준비하는 지원자가 교육 관련 봉사를 한 경우, 전공에 대한 관심이 봉사 활동까지 확대된 사례입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반드시 전공 관련 봉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봉사 활동에 대한 평가는 단순 누적 시간이나 명칭, 주최 기관 등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활동 내용과 진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공 관련 봉사 활동이 있으면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봉사 활동에 대한 평가는 어떤 봉사를 했는지보다 어떻게 봉사했는지가 중요하므로 지원하려는 분야와 비슷한 활동에 참여한 것만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Q 고려대학교 주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특정 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합격과 불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고려대학교 주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대학교 주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만으로 유리한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자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진로를 고민하고 발전하는 모습 그 자체를 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이름이나 주최 기관이 평가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진로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관심 분야를 넓히고 깊이를 더해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활동이 구체적 내용으로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추천서에 적혀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합격자를 발표하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반영되는 건가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입학 전형에 따라 대학능력수학시험 최저학력기준이 있습니다. 많은 지원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받으면 수시 전형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최저학력기준은 말 그대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만 활용됩니다.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높게 나왔다고 그 성적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V. ‘학종’ 선배가 들려주는 합격 이야기



지금부터는 고려대학교 합격생을 만나 생생한 대입 준비과정과 합격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참가자

김세현_ 일어일문학과 18학번
박경민_ 노어노문학과 17학번
윤지은_ 경영학과 17학번
이성민_ 화공생명공학과 18학번

김지혜_ 영어영문학과 17학번
박유빈_ 건축학과 16학번
이기정_ 생명과학부 18학번

남궁영선_ 국어교육과 18학번
서민경_ 국어국문학과 18학번
이보경_ 교육학과 18학번

Q 안녕하세요!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열심히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 학생들에게 솔직한 이야기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고등학교 때 활동들이 궁금해요. 가장 의미 있게 참여했던 교내활동은 무엇이었나요?



지혜

저는 동아리 활동이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원래 희망진로를 방송 쪽으로 생각해서 교내 방송국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이 활동을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뚜렷한 진로의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방송부 활동과는 전혀 다르게 실제 PD가 하는 업무와 비슷한 내용을 미리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이유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막연히 꿈꾸어 왔던 저의 진로를 자세하게 설정하는 과정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정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영화 '컨테이션'을 감상한 후 변종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미칠 위협을 체감하여 관련 소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이때 다른 친구들은 '가설-실험-검증' 단계의 연역적 방법으로 논문을 작성했는데, 저희 조는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 새로운 지식의 확장을 이끄는 귀납적 방법으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남들과 다른 방법을 택한 만큼 그 길을 개척해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며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논문이 저의 진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더욱 의미가 큰 활동이었습니다.



경민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다닌 고등학교 주최로 열린 전국 연합 학술제에서 영어 사회를 맡아 보았던 것이 가장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학술제였는데 사실 제가 목표로 했던 것은 전체 학생들 앞에서 의제를 발표하는 스피커의 역할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저보다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많아서 스피커 대신 사회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학술제가 열리기 3개월 전부터 'Ladies and gentlemen'으로 시작하는 내용의 대본을 직접 써보고 선생님들께 계속해서 수정 및 지도를 받으며 준비했습니다. 지역 교육청 관계자 및 참여한 6개 학교의 선생님, 학생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게 되어 많이 긴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술제를 마친 후, 식의 진행이 아주 매끄러웠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고 지역 뉴스와 인터뷰를 하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해외결연학교 교류행사, 졸업식 등 교내의 여러 행사에서 영어 사회를 맡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을 뿐 아니라 아나운서의 꿈을 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고등학교 생활 중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을 텐데요. 그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고 또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보경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성상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 모두 열심히 해야 한다는 점이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내신 시험 기간에 비교과 활동 기간이 겹치는 경우 시간 분배를 하는 것이 어려웠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이 점은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많은 학생들도 공감할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 두 시간은 관심 있는 비교과 활동을 하기 위한 시간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읽는 책을 읽거나 교내 프로그램 및 경시대회 준비를 하고, 2학년 말에는 자소서 작성 연습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매일 두 시간을 비교과 활동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근시안적으로 보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지만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이 충돌하여 둘 중 하나를 놓치게 되는 일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경민

수학 성적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범위를 선행학습 했기에 첫 학기는 무난하게 지나갔지만 그 다음 학기부터는 서서히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에는 처음으로 형편없는 점수를 받고서는 마음이 불안해서 결국 수학 선생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수학 선생님께서 제 고민을 들으시고는 보충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아침 30분, 점심시간 30분을 활용해 빈 교실에서 추가적인 문제풀이와 해설을 해주셨고, 문제집도 따로 챙겨주시면서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수학을 두려워 했었지만 수학 보충학습에도 참여하고 나중에는 수학반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렵다고 피하지 않고 더욱더 수학을 접하는 환경에 제 자신을 노출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수학에 정면으로 맞서려는 마음가짐, 그리고 선생님의 많은 도움과 격려로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영선

심리적인 부담감이 3년 내내 힘들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1학년 때는 처음 시작한 내신 경쟁, 3학년 때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점수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떤 문제집을 푸냐고 하면 괜히 관심 두게 되고 어떤 학원을 간다고 하면 불안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몇 번의 시험을 보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불안감을 자연스럽게 해결해나갔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불안해하지 말고 최대한 자신을 믿고 하나, 둘씩 이루어가면 결국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Q 본인만의 남다른 공부방법이 있었다면 소개해주세요.



경민

저만의 남다른 공부방법은 바로 동기부여 요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동기부여 요인은 바로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어 선생님의 열정적인 수업을 듣고는 유쾌하신 선생님의 매력에 이끌려 중국어 공부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수업시간 선생님의 질문에 답하는 재미와 모르는 것을 찾아 물어가며 공부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시험공부도 열심히 해서 3년 내내 중국어 과목 1등급을 유지했고, 평소에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한 시간씩 투자해 HSK를 독학하면서 5급을 따냈습니다. 선생님께서 뿌듯해하며 대견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더욱더 공부에 열정을 쏟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문계열 진학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공부에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요인을 찾아 학습효과를 높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현

저는 친구들과 스터디를 구성하여 강의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각자 파트를 정하고, 각자 담당 파트를 공부한 뒤 친구들에게 수업을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놀이같이 할 수 있어 즐거웠고 잘못 알았거나 몰랐던 부분을 친구들의 설명으로 보충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담당한 파트를 어떻게 친구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 고민하면서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빈

저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하루를 큰 시간 단위로 보고 2~3시간, 짧게는 1시간씩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세세하게 시간을 나누어 계획하면 미루는 일이 드물어집니다. 모두 동그라미가 그려진 하루 스케줄표를 닮을 때면 스스로 뿌듯함이 생기고 나아가 일주일, 한 달 단위로 쌓이게 됩니다. 막연히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수험생에게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공부방법이라 생각합니다.

Q 자기소개서 준비는 어떻게 했나요?



지은

고등학교 생활을 돌아보며 기억에 남는 경험을 위주로 구조화했습니다. 진로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과정, 진로에 대한 관심이 심화 되는 과정, 마지막으로 확실한 진로와 목표를 정하는 과정을 자소서에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자소서 각각의 항목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기준에 맞게 배열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번 항목에서는 학생이 학업에 대한 궁금증이나 역량을 갖고 있는지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증을 가졌던 부분을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 과정에서 새로운 관심이나 궁금증이 생겼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 해결했는지를 작성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단기간 급하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고등학교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각 항목이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이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경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연습을 2학년 때부터 꾸준히 해왔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와 유사한 형식으로 자기PR 형식의 글을 작성하거나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는 교내활동을 하면 그에 대한 소감문이나 보고서를 정리한 포트폴리오 파일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읽으면서 어떤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의 참여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를 상기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 단계를 거치고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개인적으로 중시했던 부분은 연결성이었습니다. 단편적인 경험이나 활동을 적는 것도 좋지만 3년 동안 하나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음을 연결하여 작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3년간 양로원 봉사를 한 것을 단순히 단편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양로원 봉사활동을 통해서 느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학년 때 '독거노인의 고독사 실태'라는 주제의 소논문을 작성하였고 3학년 때 인문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노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작성하며 특정 분야 탐구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려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자소서를 작성했던 방식을 단계별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활동 정리 단계(생활기록부를 토대로 교과, 수상실적, 진로활동, 동아리 활동, 창체활동, 교과 세특, 행동발달 등 분야를 나누어 활동을 분류)
2. 조직화(활동 중에서 연결성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동일 색의 형광펜으로 표기)
3. 초안 작성(완벽한 글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초안을 완성)
4. 수정 및 보완



영선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자기소개서 초안을 작성해 본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최종본은 초안과 전혀 다른 활동, 전혀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었지만 한 번 작성해보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활동을 보충해야 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안을 작성한 후 반복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참, 마지막으로 저를 가장 잘 아는 선생님께 첨삭을 부탁드려 마지막 수정작업을 거쳐 자기소개서 최종본을 완성했습니다.

Q 면접을 막연히 두려워하는 수험생들도 있을텐데, 여러분은 어땠나요? 긴장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성민

면접의 결과는 경험과 준비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전 면접에 임하기 전에 수차례 교육청 및 학교에서 운영하는 면접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모의 면접을 여러 번 진행하고 예상 질문을 직접 작성해보았습니다. 친구들과 동아리를 만들어 1년 동안 실제처럼 모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말하기 습관도 고칠 수 있었고, 실제 면접장에서 긴장을 덜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이 무섭진 않을까?'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적어도 제가 면접장에서 뵈었던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답변을 잘 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은 하지 말고, '나는 최고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면접에 임하신다면 무리 없이 잘 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경

면접을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학 입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막대하기에 저 또한 청심환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을 극복하지 못해 타 대학교 면접을 만족스럽게 끝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꿈꾸던 대학교 입학을 앞에 두고 괜한 긴장감 때문에 떨어지면 너무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긴장을 풀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생각한 방식은 모의 면접이었습니다. 각 학과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교수진 카테고리가 있고 거기에는 교수님들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사진을 전부 프린트해서 벽에 붙여두고 그분들을 보면서 모의 면접을 진행해보기도 하였고 일부러 고등학교 선생님 세 분께 부탁하여 면접장과 유사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대일 면접이라고 해서 대략 스무 명의 친구들을 상대로 면접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의 면접을 반복적으로 하며 면접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유빈

저도 면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평소 발표나 앞에 나서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 자신은 있었지만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고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 앞에서 숨이라도 잘 쉴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벽한 준비를 택했습니다. 제가 부탁할 수 있는 친구들과 부모님, 선생님께 저의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주며 모의 면접을 부탁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 질문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면접에서 예상했던 질문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모든 준비를 다 했다'라는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면접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Q 분위기나 장소를 궁금해하는 후배들이 있을텐데, 면접장은 어떤 곳이었나요?



보경

면접장에는 대기하는 장소와 실제 면접을 보는 장소가 나누어져 있고 제 차례가 되어야 면접실 바로 앞에 준비된 의자에 앉아 정해진 시간 동안 제시문을 읽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시를 떠올려보면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몹시 조용하고 모든 것이 엄격한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2학년이 된 후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번 밖에 없는 기회라는 압박감과 간절함이 면접장을 더욱 무섭고 어렵게 인식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엄격할 수 밖에 없지만, 면접 과정에서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압박하는 질문은 없었습니다.



민경

면접장에 도착하면 우선 모든 수험생들이 모여 있는 대기 장소로 안내를 받습니다. 소지한 전자기기들을 제출한 후, 면접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전달받고 차분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면, 본인의 면접시간까지 대기시간이 있습니다. 다리를 덜덜 떠는 수험생, 책을 읽는 수험생 등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대기하다가 인솔 조교를 따라 개별 면접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면접장에 들어서기 이전에는 항상 면접 보조 요원과 동행하게 되니 외롭거나 쓸쓸하지는 않았지만 면접장에서는 오롯이 혼자가 됩니다. 면접관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것으로 면접이 시작됩니다. 면접장에 있는 모든 고려대학교 관계자분들이 수험생들을 도와주고자 힘써주시기 때문에 차갑거나 삭막한 분위기가 아니라 다소 긴장은 됐지만 따뜻한 분위기였다고 기억합니다.



지혜

면접은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학생 한 명을 면접관 두 분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면접관의 인상이 부드러우셨고, 제가 긴장하지 않도록 간단한 인사를 건네기도 하셨기 때문에 엄숙하기보다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면접관계서는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Q 면접 대기 시간은 어느 정도였나요? 대기 중에는 무엇을 했나요?



경민

저는 뒷 순서여서 제 차례가 올 때까지 2시간 정도 기다렸습니다. 앞 순서였으면 엄청 긴장한 상태로 면접을 봐야 했을 텐데, 2시간을 기다리다 보니 긴장이 많이 풀어진 상태에서 면접을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대기 중에는 핸드폰, 시계, 전자기기 모두를 수거해가시기 때문에 미리 챙겨간 면접 준비 자료들을 읽었습니다. 어떤 주제의 질문이 나올지 생각해보면서 답변할 때 활용할 고전 작품들, 사회탐구 과목의 개념들을 정리하며 면접순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전 일찍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느라 잠이 부족했기 때문에 5분 정도 쪽잠을 자기도 하면서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리려 노력했습니다.



영선

저는 2시간 정도 대기했는데 그동안 준비해간 제 학교생활기록부를 차분히 읽어보고, 미리 뽑아온 예상 질문들도 계속 봤습니다. 제시문 면접에 대해서는 풀지 않고 남겨둔 기출문제를 가져와서 대기하는 동안 답변 구성 연습을 했습니다. 사실 제시문 면접을 대기 장소에서 대비하기는 다소 어렵기 때문에 당일에는 생활기록부 위주로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다 싶으시면 저처럼 한 개 정도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경

저는 고려대학교 면접을 봤을 때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1시간 이내로 대기했고 대기 중에는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 제가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중요했던 자료들을 차분히 읽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면접을 준비하는 저만의 팁은 '면접 때 이 내용은 꼭 말해야겠다!' 하는 주제를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 준비해서 잊지 않도록 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의 면접을 해보니 면접장에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점을 깨달은 후에는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면접관님들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 활동이나 느낀 점, 포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면접도 자기표현의 장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를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제시문 면접의 난이도는 수험생이 느끼기에 어땠나요?



경민

면접 제시문은 생각했던 것만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해한 고려대학교 제시문 면접 질문의 핵심은 서로 다른 영역의 내용이 가진 공통된 특징을 찾아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봤던 제시문의 주제는 '익명성'이었는데,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공부했던 어떤 내용을 활용하여 답변을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제시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알맞은 예시를 들어가면서 간결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준비하는 연습을 한다면 제시문 면접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민경

면접 준비를 하면서 봤던 기출 문제들과 실제 면접장에서 만난 제시문의 난이도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지문은 달라졌지만 형식은 비슷하였고 미리 기출문제를 활용하여 준비했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시문이 경제, 신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되기는 했지만, 제시문 자체만으로도 내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해 제시문들 간의 관계와 제 생각을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민

제가 판단했을 때 면접 난이도는 평이했다고 기억합니다. 심화 지식을 요구하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해보고 창의력이나 경험을 꺼내 말할만한 질문들이 꽤 있었습니다. 평소 본인 고유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제시문인 동시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는 기본적 개념이나 지식은 알고 있어야 답변할 수 있는 제시문이었기에 이공계 학생들에게 각자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제시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 면접을 본 선배로서,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민

면접의 결과는 사전 경험과 준비에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의 준비는 비싼 돈을 들여 연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면접 준비를 하면서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나는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고 대처할 사람인가?',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고 호불호가 있는가?' 등 스스로 질문을 적어가며 답변하다 보면 학생부 면접은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 면접의 경우에는 평소 공부할 때 수학과 과학 개념을 꼼꼼히 이해하고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생각해보는 것, 그리고 나의 경험과 진로를 현재 배우는 지식에 연관시켜보는 것이 답변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토대로 모의 면접이나 토론, 발표 수업 등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말하는 스킬이나 발표 자세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경

제시문 면접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 전의 사고방식과는 다른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강의식 수업이 중점이었거나 교과목 이외에 다른 형태의 학습을 진행하지 않으면 제시문을 분석하고 관계성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것은 기출문제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선행학습연구 보고서나 기출 자료를 통해서 그 이전의 면접 제시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대학교나 타 대학의 이전 자료를 분석해보는 것도 하나의 훈련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2학년 때부터 하나의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는 두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주장과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훈련을 미리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문학적 지식이나 희망 전공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세현

방과 후 면접반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니 고칠 점이나 좋은 점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인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통해 부끄러움이나 쑥스러움이 사라졌고 연습횟수가 늘수록 답변도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단 다른 사람들과 직접 연습을 여러 번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도 여러 번 읽으면서 이것에 대해 어떤 질문이 들어올 수 있을지 예상 질문을 써보고 답변지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시간이 없다면 적어도 생활기록부에서 의미 있던 활동들만이라도 꼽아서 그 활동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리한 후 면접 전에 여러 번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Q 입학 후, 대학생활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알려주세요.



지혜

저는 이미 대학생이 된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어느덧 3학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처음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고등학교와는 다른 학습 환경과 동아리 환경 등에 흥미를 느껴 이것저것 시도해보았고, 운 좋게도 그러한 활동을 통해 저의 진로에 대한 테두리를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중전공을 어떤 과로 할지, 그리고 다른 학회나 동아리, 봉사활동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고민하여 그 테두리 안을 색칠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성인이라는 이름 아래서 얻은 해방감에 취해있지 말고, 대학의 이러한 장점,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전 '면역학자'라는 제 진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학부 전공과목인 면역학이 가장 어렵다고 소문이 나서 저는 이 과목을 듣기 전에 다른 전공과목들을 먼저 수강하고자 다짐했습니다. 이 과목을 빨리 수강하고 싶은 마음에 아직 1학년이지만 세포생물학과 미생물학을 수강 중입니다. 내년에는 면역학 강의를 수강할 생각입니다. 또한, 제가 고등학생 때 설정한 '저만의 인생 목표'를 달성하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최근 경영에도 관심이 생겨 IT경영 동아리에서 활동할 생각이며, 평소 춤추는 것을 좋아해 댄스동아리에서도 활동할 생각입니다. 다양한 학문, 분야, 사람들을 접해가면서 '제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질들을 지속적으로 함양해 나갈 생각입니다.



경민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1학년 때는 운동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교내 대회에서 우승하고, 외부 대회에서도 여러 차례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동아리에서 만난 선후배 동기들과 끈끈한 네트워크도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여름방학 때는 월드프렌즈 ICT봉사단에 선발되어 우즈베키스탄에서 5주간 IT교육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노어노문학과에서 배운 러시아어와 CIS권에 대한 지식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봉사를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는 내년 1학기에는 이중전공으로 경영학과를 선택하여 수업을 들으면서 천천히 교환학생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교환학생은 특히 대학생일 때만 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니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해외로 가셔서 한 학기 정도 문화체험도 하면서 공부도 하는 경험을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Q 지금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민경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고 많은 고민의 순간이 분명 찾아올 것입니다. 특히, 원서접수를 하고 자기소개서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시간에 더욱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든 친구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초조한 그 순간도, 불안한 내 마음도 온전히 자기 자신이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 앞에 큰 두려움보다 약간의 설렘, 두근거림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대학교는 정말 소중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고려대학교에서의 생활은 더 즐겁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경민

학생부종합전형은 선택과 집중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자신이 해온 활동 중에서 자신만의 특징과 독창성이 가장 잘 드러나고 지원하는 전공 분야와 관련이 있는 활동들을 추려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학교생활을 해왔는지 곰곰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인 만큼, 서류에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지난 노력을 입학사정관 선생님들께서 잘 알아주실 것입니다. 각자의 학교생활에서 의미를 찾아보고, 이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한 자신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신감을 가지고 입시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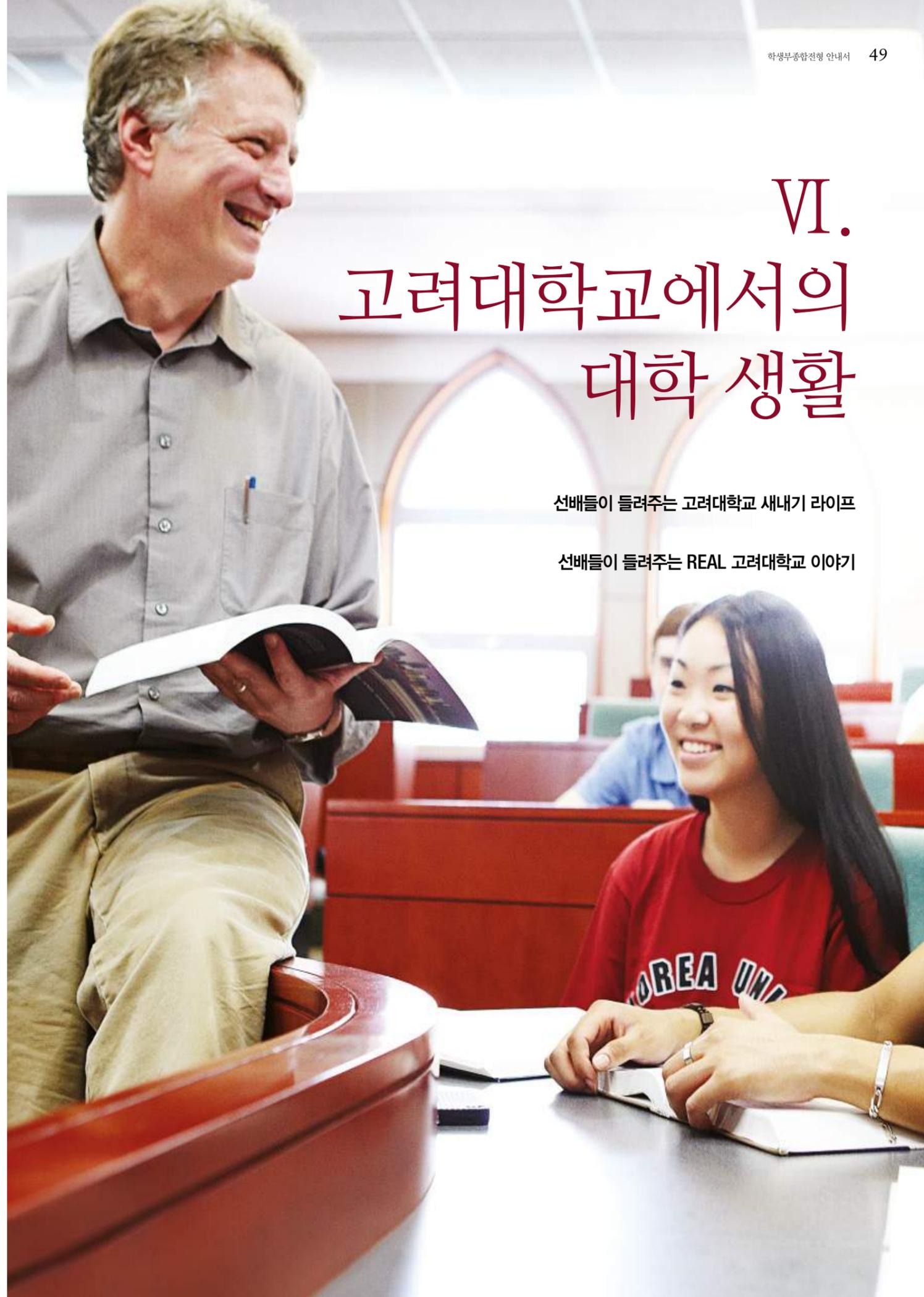
유빈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들 때가 있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모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학창시절 12년 동안 열정적이었던 나를 정리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이켜봤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지도 함께 계획해보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하게 꾸미지 않아도 진심을 다해서 자기소개서를 써 보고 생활기록부를 다져간다면 분명 인생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VI. 고려대학교에서의 대학 생활

선배들이 들려주는 고려대학교 새내기 라이프

선배들이 들려주는 REAL 고려대학교 이야기



선배들이 들려주는 고려대학교 새내기 라이프

#수강신청

고교시절과 대학생활의 차이점을 가장 먼저 느낀 순간은 바로 수강 신청기간입니다. 시간표가 정해져 나오던 고등학교와는 달리 대학교에서는 듣고 싶은 전공과 교양 과목을 스스로 정하고 직접 신청해서 시간표를 짜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낯선 전공과목들과 다양한 교양과목들 사이에서 저에게 맞는 수업을 찾고, 직접 신청하는 것이 쉽지않은 않지만 제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설렘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영진_경제학과 16학번

#밥약 #중앙광장잔디밭

선후배간 밥 약속을 의미하는 "밥약"은 학과나 동아리 선배가 후배에게 밥을 사주고 친목도 다지며 새내기의 적응을 돕는 고려대학교의 끈끈한 문화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던 1학기 초반엔 모르는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대학 생활에 대한 조언도 얻는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허영서_경영학과 17학번

저는 중앙광장에서의 추억이 많아요. 고려대에 처음 온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캠퍼스를 소개해준 후, 잔디밭에 함께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때 눈에 들어온 고려대학교 본관 웅장하고 중후한 건물에 열린 주황빛 조명이 비춰지고 있었는데 '내가 정말 고대생이 되었구나' 하는 자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들과 본관 앞에서 찍은 인증샷은 아직도 저의 인생사진으로 남아있어요.

이강희_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17학번



#응원OT

입학 전부터 가장 기대했던 것이 바로 응원문화였습니다. 합동응원 OT에서는 연세대 친구들과 같이 서로의 응원을 배웁니다. 빨간색 고대티를 입고 응원을 할 때마다 진짜 고대생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처음에는 그 많은 응원과 응원가를 다 외우지 못할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 목소리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벅했습니다.

윤은비_간호학과 17학번

#석탑대동제 #입실렌티

5월의 맑은 봄날, 고려대학교 축제인 "석탑대동제"의 즐거운 분위기 속에 덩달아 설레는 마음으로 캠퍼스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석탑대동제 기간에는 여러 동아리가 부스를 운영하고 다양한 기업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동아리 부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체험과 맛있는 먹거리를 신나게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먹었던 큐브스테인 맛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혜린_정치외교학과 15학번

응원OT 때 제대로 배운 응원을 맡겼 하면서 애교심을 느끼게 되는 기회는 바로 "입실렌티"입니다. 입실렌티는 석탑대동제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축제행사로, 고려대학교 녹지운동장에 빨간 물결이 넘실대는 날입니다. 응원OT 때에는 다소 어색하고 어깨동무를 하는 것도 망설여졌지만 입실렌티 때에는 선배들처럼 응원에 익숙해져 신나게 응원할 수 있었습니다. 녹지 운동장을 가득 채운 붉은 고대 티를 입은 학우들과 한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초청가수들의 무대를 보며 더 함께 뛰노는 경험은 잊을 수 없습니다.

이영진_경제학과 16학번

#중간고사 #도서관

정신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보면, 어느새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옵니다. 대학 입학 후 처음으로 보는 시험이다보니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동기들과 배운 내용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할지 판단을 내릴 수 있었고, 동기들과도 더욱 더 친해진 것 같습니다.

이현중_화공생명공학과 17학번

대학생으로서 맞이하게 되는 학업은 고등학생 때보다 자기주도적인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고등학생 때는 학교 수업만으로 부족하면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거나 학원의 도움을 받았지만 대학 입학 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많은 전공서적들을 직접 찾아보는 것은 물론이고, 학과 교수님, 선배, 동기들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보며 공부해야 했습니다. 새내기 시절에는 이러한 점들이 익숙하지 않아 힘이 들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이영진_경제학과 16학번

#여름방학 #연구활동 #아르바이트 #자기개발

저는 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많아 1학년때부터 여러 가지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잠시 학부공부에서 벗어나 연구원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논문을 써보는 과정은 많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공학에서의 연구 방법론을 배우고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의 선두에는 무엇이 있는지 직접 보면서, 몇 년 후 제 자신의 모습을 그릴 수 있었고 정확한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심규현_컴퓨터학과 17학번

입학 후 처음으로 맞이한 여름 방학 때, 친구들과의 자유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에서 단기 조교로 근무하였습니다. 사회생활이 아직 낯설고, 일처리에 능숙하지 않아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담당 선생님들과 다른 조교 선배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어서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더욱 열심히 아르바이트에 임했고, 지금까지도 인연이 닿아 꾸준히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무엇보다도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김용언_노어노문학과 14학번

#MT

중간고사를 마치고 과 동기들과 함께 MT를 갔어요. 도착하자마자 고대 응원가를 들으며 나 할 것 없이 응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이 준비한 레크리에이션도 즐겼죠. MT를 가서 마냥 놀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새벽에 전공이나 진로에 대해 얘기하면서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에서 위로를 받기도 했고 이런 친구들과 같이 나아간다면 대학 생활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답니다. 이 기억을 마지막으로 필름은 끊어졌지만 친구들과는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강희_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17학번

자기개발의 일환으로 방학기간동안 C언어와 포토샵공부를 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전공자인 친구에게 물어보면서 진행하였는데,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아닌 스스로 배우길 원해서 하는 공부는 어려워도 덜 힘들게 느껴지는 등 색다른 재미를 주었습니다.

조정수_화학과 17학번



#정기고연전

14년 가을, 정기 고연전에서 고려대학교가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5:0 전승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응원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안암에서 응원가를 부르며 처음보는 학우들과도 신나게 즐겼습니다. 수 백, 수 천명의 사람들이 한 축제에서 이렇게 단합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기 고연전은 대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부러워 할 고대인들의 축제라 생각합니다.

김용언_노어노문학과 14학번

새내기로서 처음 참여한 고연전이 5대 0으로 지다니... 우울한 결과였지만 응원이 너무 재미있어서 관찮았어요! 다들 붉은색 옷을 입고서 어 깨동무를 하고 큰 소리로 응원하니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뒤풀이 때 연세대 친구들이 얼마나 놀리던지 결국엔 놀림당하는 걸 즐기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신촌에서 했던 기자회견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에요. 올해엔 꼭 우리 학교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허영서_경영학과 17학번

#전공강의 #조별과제

2학기 때 드디어 학교에서의 첫 전공 수업을 들었습니다. 1학기 때 배운 내용들은 공과대학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할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과에서 무엇을 배우고 연구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과에서 어떤 것들을 배워 나갈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과의 동향,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음으로써 나중에 제가 무엇을 해야할지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현중_화공생명공학과 17학번

고등학생 때 들었던 수업이 '주어진 재료로 최선을 다해 특정한 요리를 만들어보세요'의 느낌이였다면, 대학교에 입학해 마주한 전공수업은 '넓은 들판에서 재료를 스스로 찾아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보세요'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동기들과 도서관이나 열람실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쌓일수록 훌륭한 요리들을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이혜린_정치외교학과 15학번

대학생활 관점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조별과제였어요. 저는 자기 주장도 잘 못하고 소심해서 말도 잘 못 가는 성격이거든요. 게다가 프리라이더 문제까지 생각하면 처음 보는 사람들과 과제를 하면 잘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첫 조별과제를 겪어보면서 그런 걱정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첫 조별과제가 같은 시기에 두 개가 겹친데다가 처음 접하는 주제다보니 발표 내용을 뒤엎기도 하고 회의시간이 맞지 않아 새벽에 전화로 회의를 하는 등 난관이 많았죠.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별과제를 통해 저는 '자료조사'라는 새로운 특기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조별과제, 너무 무서워 하지 말아요!

이강희_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17학번

#외국인친구와의 교류

고려대학교 정규 외국인 학생 도우미 단체인 KUISA에서 활동했습니다. KUISA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처음인 외국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입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교내 행사에 참여하며 우정을 쌓을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1년 동안의 KUISA 활동은 여러 국적의 학생들과 만나며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황서영_지리교육과 14학번

줄곧 한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를 사귄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대학에 오고 나니 주변에 외국인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외국인 교수님께 영어로 강의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마다 외국인 친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캠퍼스에서 쉽게 사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신기했어요.

허영서_경영학과 17학번

#학생회 선거

기말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올 때 즈음, 저희 학부에서는 선거의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두 후보가 출마하면서 후보 등록부터 투표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치열한 접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생회 선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단과대학, 학부 규칙도 자세히 읽어보고 고려대 학생으로서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것 역시 지성인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희_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17학번

#수시응원행사

수험생 때 방문한 고려대학교는 너무나 낯설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험장이었던 우당교양관 앞에서 '지리교육과' 팻말을 들고있는 선배들을 보았는데, 지리교육과에 지원한 학생들을 위해 '시험 잘 보고 내년에 만나자'는 응원과 함께 작은 다과선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선배들의 응원과 기운을 받은 저는 지리교육과에 합격하게 되었고, 이듬해에는 선배의 입장이 되어 같은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막연함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면접날, 따뜻한 응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러한 행사는 사범대학의 자랑거리입니다. 예비 후배분들을 위한 이러한 문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황서영_지리교육과 14학번

#기말고사

기말고사 준비기간에 총장님과 교수님들께서 직접 커피와 빵을 나눠 주시는 모습이 기억납니다. 2학기 기말고사 기간 동안 여러 과제와 시험에 정신없는 학생들을 위해, 총장님과 교수님들께서 직접 찾아다니시며 응원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규현_컴퓨터학과 17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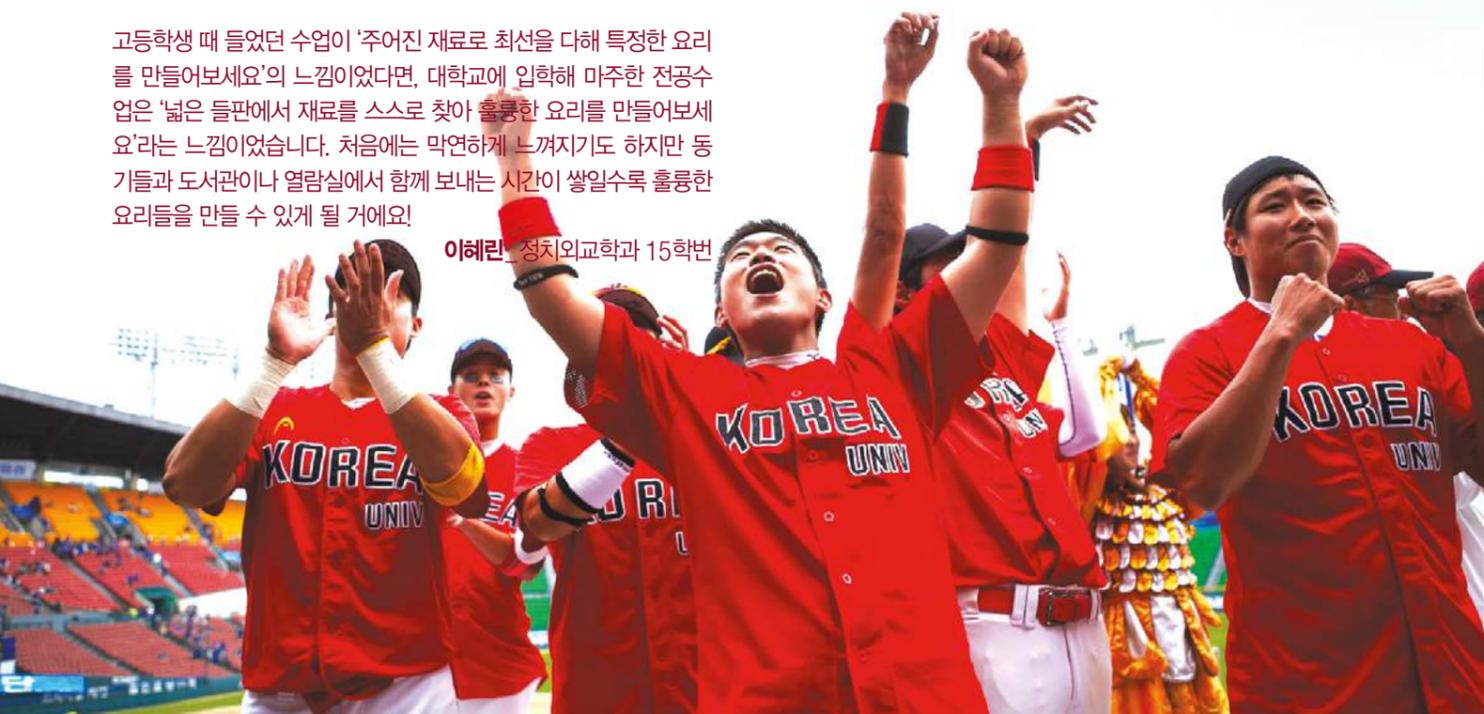
1학년 2학기는 대학교에서의 시험 공부 방법과 시간 관리에 대해 자신만의 노하우가 차츰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친한 친구들도 많이 생기면서 시험기간도 덩달아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밤늦게까지 지속된 시험공부가 지루해질 때 즈음 열람실 곳곳의 친구들을 불러내 담소를 나누며 잠시 머리를 식히는 시간을 가지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거예요.

황서영_지리교육과 14학번

#새터준비

새내기 배움터 준비 위원회, 줄여서 새준위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갔던 새터에 선배들의 노력이 얼마나 많이 깃들여져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후배들이 부담감 없이 즐겁게 새터를 즐길 수 있을까 매주 회의를 하며 많이 고민했어요. 저희 새준위가 정성껏 준비한 새터가 새내기들 마음에 들길 바라요.

허영서_경영학과 17학번



선배들이 들려주는 REAL 고려대학교 이야기

밖에서 바라본 고려대 vs 안에서 겪어본 고려대

수험생 시절 떠올린 고려대학교는 정열과 웅장함 그 자체였어요. 실제로 입학하고 보니 고려대 사람들은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놀 때는 화끈하게 놀 줄 아는 정열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학교는 사진보다 더 멋있고 웅장해요. 벚꽃, 단풍, 눈 등등 모든 계절에 각기 다른 멋을 느낄 수 있어요. 입학 전에는 내가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입학하고 보니 서로를 챙기는 건 물론, 정이 넘치고 전혀 딱딱하지 않은 학교임을 느꼈어요.

김용연_노어노문학과 14학번

직접 느낀 고려대학교는 서로 끌어주는 유대감이 강한 학교, 열정이 넘치는 학교, 캠퍼스만큼이나 웅장한 학교입니다. 하지만 다람쥐집에 있는 작은 다람쥐 동상에 계절마다 옷을 입혀주기도 하고, 캠퍼스 내 고양이들에게 집을 만들어주는 것을 보며 고려대학교의 소소한 따뜻함과 정 역시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접 캠퍼스에 오시면 고려대학교에서 일어나는 낭만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심규현_컴퓨터학과 17학번

고등학교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려대학교는 선후배간, 동기간 관계가 매우 끈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입학 후 실제로 학교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평가가 거짓이 아니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려대의 끈끈함이 있기에 처음 보는 사람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보고 배움으로써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조정수_화학과 17학번

수험생 시절에는 막연히 뛰어난 교수님들과 수준 높은 강의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진학하여 느낀 점은 훌륭한 교수님들이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하고 계시는 것도 맞지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충분히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공 과목 뿐만 아니라 교양 수업을 통해서도 세계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전공인 경제학에서는 깊이 다루기 힘든 기업의 분배원리에 대해 배울 수 있었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영진_경제학과 16학번

고려대학교는 ○○○이다

고려대학교는 저를 항상 긴장하게 만드는 팽팽한 고무줄입니다. 대학에 입학만하면 끝일 것 같았던 제 생각과는 달리 뛰어난 학우들 사이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려대학교는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면서, 저에게 한 단계 나아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

윤은비_간호학과 17학번

고려대학교는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한 학교입니다. 대학 생활에서 무엇보다 좋은 점은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고 그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안팎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야말로 제 인생에 있어 소중한 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린_정치외교학과 15학번

저는 고려대학교를 튼튼한 사다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학생들이 역량을 발휘하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죠. 하지만 올라가는데 있어서 자신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대학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워낙 좋은 버팀목이기에, 제가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라가려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김용연_노어노문학과 14학번

고려대학교는 열쇠입니다. 입학했을 당시에는 단순히 좋은 학점을 받아서 대기업에 취직을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려대학교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구실에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저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목표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부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해외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원으로 일하며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잠재력을 발견하게 해준 고려대학교는 열쇠입니다.

심규현_컴퓨터학과 17학번